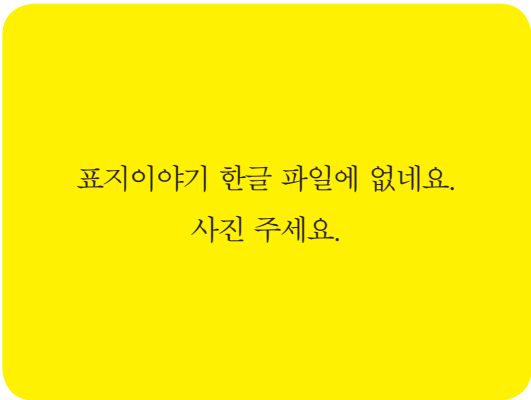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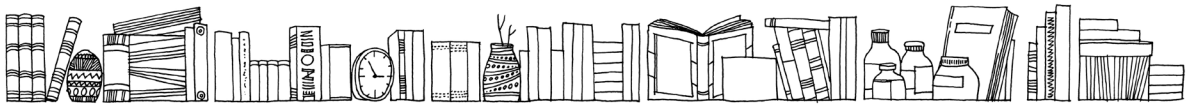


그늘 하나 없던 교육청 앞. 햇살은 뜨겁고, 공기도 뜨겁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안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 앞에서도, 무표정으로 서 있는 노란 경찰  
앞에서도 언제나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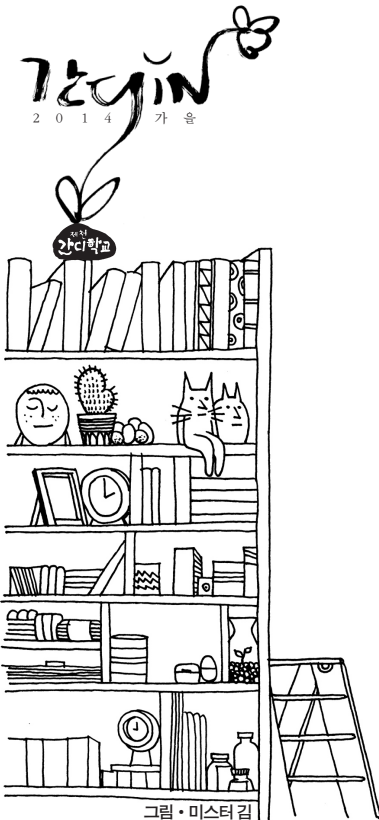
-편집장 김예림(4학년)



포지이야기 한글 파일에 없네요.  
사진 주세요.



차례



여는 글	2	가을이 오면 ♪
가을축제	4	가을바람 타고 신나는 세계 여행을!
반가워요 후원인	18	형님 먼저, 아우먼저 - 멋진 오라버니들이 계신 곳, 형제수산
우리끼리	24	타로를 믿으세요?
배움 속으로	28	싹 바뀌었다
생활관 이야기	34	벌레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사실	40	내비 뒤 좀
화제의 인물	44	털노업~! 랩하는 친구들 투스
간디IN의 짧은 소식	52	간디인 스케줄러 / 간디IN의 짧은 소식
기자 후기	62	기자 후기



# 가을이 오면 ♪

김예림 편집장(4학년)

슬슬 가을 옷을 꺼내야겠습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 또 여름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것처럼 학교도 앓는 모양입니다. 매년 그래 왔듯이 학교는 가을 축제를 하고, 논문을 쓰며,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뒤숭숭합니다. 학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가정학습을 가기 전 긴급회의가 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술학교(음주시 가입하는 위원회) 가입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환절기라 그런 걸까요? 쌀쌀한 날씨에 선풍기를 놓아야 할 때 보일러를 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식당에 수박이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은 여름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일상다반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간디인 가을 호를 써 내려갑니다.

아직 여름에 남아 있는 기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름하면 벌레! 벌레 하면 생활관! 생활관 이야기를 맡은 이한솔 기자는 근 몇 년 만에

마감(지키진 못했지만)과 근접한 시간에 보내 주었습니다. 벌레를 씹고 뜯고 맛보라는 기자들의 주문에 당황하면서도 기숙사 벌레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젠 파리, 개미, 돈벌레, 나방의 매력과 출몰지역을 다 꿰뚫고 있다는 소문도 도네요.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벌레들과 많이 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가워요 후원인’ 기사를 맡은 한별 기자는 충주의 형제수산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기자와 말이 안 맞아 함께 가지 못한 탓에 인터뷰 사진을 핸드폰으로 대신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지만, 몸도 위장도 뽕뽕하게 채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터뷰 후 구경할 겸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고, 밥도 얻어먹으며 셋이서 다섯 개의 메뉴를 먹었다는 말에 기자들 모두가 부러워 몸서리쳤습니다. 다음 기획회의부터는 다들 ‘반가워요 후원인’ 기사를 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별 기자의 몸과 마음을 살찌워 준 후원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가 나를 인터뷰해야 하는 기이한 일도

생겼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맡은 김민석 기자는 후보에 자신이 소속된 ‘투스톤’이 올라가자 “이러다 내가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더니 정말 화제의 인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자문자답으로 해야 하나, 투스톤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 하나, 하다가 한별 기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투스톤의 팬이 인터뷰를 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문으로는 김민석 기자가 인터뷰해 줄 팬을 다급하게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있네요.

처음 기사를 써 본 최유경 기자는 우리 학교의 가장 떠오르는! 가장 핫한 대세인 타로 소모임을 인터뷰했습니다. 역시 신입 기자답게 가장 먼저 기사를 마감해 주었는데요. 인터뷰 대상이 조금 특별하다 보니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타로 소모임을 인터뷰하는 만큼 일상다반사의 관계에 대해 타로를 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은 일상다반사의 관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간디인 스케줄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삽화 기자인 이가원 기자에 이어 그 동생 이령경 기자가 새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몇 년간 고생한 이가원 기자의 스케줄러와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대로만 잘 해 준다면 얼마 안 지나 언니를 뛰어넘을지 모를 일입니다.

마감이 훌쩍 지난 어느 가정학습, 커다란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역시 필리핀에서 오자마자 편집장을 맡은 탓입니다. 아직 정신은 필리핀에 가 있는 듯하네요. 모든 원고를 받아 편집을 끝내서 넘기려는 순간 외장 하드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모든 파일이 날아가고, 기자들의 원고를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가질 않습니다. 언제 가을이 왔나

했더니, 가을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편에서는 대안교육 법제화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배우고 사는 게 부러웠는지 자꾸 우리가 틀렸다고 하네요. 학교가 폐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회는 성명서를 쓰고, 전교생이 서울로 법제화 반대 집회를 갔습니다. 간디인에서 역시 대안교육 법제화를 사설로 다뤘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풀어 놓았습니다.

가을 호부터는 장우정 사진 기자와 하한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설을 청탁하고, 사진 기자 대장이 바뀌는 등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저희끼리 그 빈자리를 잘 채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한 차례 태풍이 불어온 걸까요, 되는 일이 없네요. 최근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는 1박 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약속, 규칙,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문화에 대해서 터 놓고 얘기하고 상황극으로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빗물에 다 젖겨 내려가듯이 우리 학교에 불어온 태풍도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올 가을은 무사히 넘기기보다 힘들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난 학교는 내년 이맘때쯤엔 책을 읽고, 산책하고, 하늘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쌤들과 학생들의 회의 시간도 줄어들겠죠! 어제 되는 일이 없었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은 잘 될 거라 기약하며, 올 가을의 간디인도 시작합니다! 🍂



# 가을바람 타고 신나는 세계 여행을!

이한결 기자(1학년) | 이예슬 기자(3학년)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이런 때, 간디학교에서는 어김없이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간디인들은 매년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축제를 기대하지요. 이번 가을 축제 역시 간디인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재밌고 풍성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축제는 해마다 5학년이 기획, 준비하는데요, 이번 5학년들은 어떻게 가을 축제를 준비했을까요? 이한결 기자가 이번 가을 축제의 대표자 조영서 군(5학년)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 축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가을 축제의 주제는 '세계 여행'이야. 블루마블같이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컨셉이지. 학교 2층에 공항이 있고 2층 교실마다 여러 나라의 모습을 담은 부스들이 있을 거야. 공항의 안내원이 랜덤으로 5개 정도의 나라 부스를 묶어서 코스를 정해 주면 거기에 있는 나라로 가서 즐기면 돼. 이번 가을 축제의 특별한 점은 먹을거리가 공짜라는 점과 학교랑 운동장, 둘 다 쓴다는 점 같아.

Q. 이번 가을 축제만의 특별한 부스가 있나요?

A. 음... 세계여행 컨셉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 운동장에 '면세점'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야. 면세점 부스에서는 동아리 수익 사업이랑 작업장 수익 사업을 다 같이 진행할 것 같아.

Q. 이번 가을 축제 공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공연은 저번 가을 축제의 스타일이랑 별로 다르지 않고 춤, 노래, 연극, TV 프로그램 패러디, 애국가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 줄 건데, 축제 컨셉트에 맞게 공연 사이사이에 패셔니스타 가리기,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벌칙 같은 특별 코너가 나올 거야.

Q. 우와, 패셔니스타 가리기와 바이러스라니, 재밌겠는데요. 무슨 공연인지 설명 부탁 드려요.

A. '가을 축제의 패셔니스타 가리기'는 관객들 중에 가장 공항 패션처럼 입은 사람을 즉석에서 몇 명 뽑아 각자의 매력을 어필한 뒤, 그중에서 최고를 뽑는 코너야.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잖아? 이번 주제가 마침 세계 여행이어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중 몇 명에게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든 바이러스 감염 표지를 한 다음에 공연 때 감염된 사람들을 무대로 불러서 복불복으로 백신을 투여할 거야. 백신은 김치 맛, 고추냉이 맛 등 다양한 맛이 있어.

Q. 가을 축제 예산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A. 예산은 샘들이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50만 원 정도는 공연 섭외나 무대 설치 진행으로 쓰이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 예산을 다 짰 뒤에 선생님들에게 예산안을 통과 받으면 그때부터 예산을 쓸 수 있어. 이번에 예산안을 짜면서 처음에는 먹을거리 재료를 유기농으로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초과돼서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동의를 받고 일반 식품으로 준비하기로 한 일도 있었어.

Q. 가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내가 가을 축제 총괄이잖아? 거의 대장 격인데 우리 반이 이런 책임자를 뽑는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 그래서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는데 17분의 1 확률

로 내가 걸려 버린 거야. 사실 나는 이런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난처하면서 힘들기도 했어. 그리고 처음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것 같다가 축제가 다가오니까 엄청 바빠졌지.

Q. 가을축제를 준비하신 소감 한 마디!

A. 글썸... 아직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1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지금처럼 별일 없이 계획대로 준비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축제를 준비하는 건 어렵고 바빠. 그래도 우리 반이 다 같이 모여 웃으면서 회의하고 맞춰 가는 과정이 즐겁기도 해. 예전엔 항상 싸우기만 했는데 말이야.(웃음)

Q. 사람들에게 이번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 준다면?

A. 순전히 주사위 운에 달렸는데, 코스가 잘 걸려야 해. 어떤 나라에 가면 먹을 것만 많이 주고 어떤 나라에 가면 게임만 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지 못하면 여행을 즐기기 조금 어렵겠지? 그래도 각 나라마



다 재밌는 점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즐기면 될 것 같아.

흔쾌히 인터뷰해 준 영서 형 고마워요! 영서 형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가을 축제를 열심히 준비했던 5학년들이 정말 수고한 것 같고 대단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가을 축제를 준비하러 떠나야겠어요! 예슬 누나,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직접 가을 축제를 즐겨 볼 시간! 햇반 여행사가 준비한 세계 여행 패키지로 여행을 떠날 생각에 간디인들은 축제 전날부터 기대를 품고 당일 아침부터 학교로 모였다. 곧 있으면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니, 모든 간디인들은 집합! 이제 가을 축제의 생생한 현장으로!!!

2014. 09. 27 09:00:00

복적복적 강당에 모여드는 학생들. 원래 이 시간에는 각자 반에서 아침 열기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인가에 다들 강당으로 오는 걸까?

“오늘 세계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아침 열기를 강당에서 같이하게 됐어요.”

그렇다. 오늘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계 여행을 떠나는 날!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진 언니(5학년)의 설명을 들으며 입국 안내서를 썼다. 입국 안내서는 여권 받을 때도 확인받아야 하고, 저녁 때 있을 야외 무대 ‘한국’에서 추첨을 할 때도 쓰이는 것으로, 이름과 생일, 죽고 싶을 때, 좋아하는 숫자, 햇반(10학년)에서 가장 예쁜/멋진 사람 등, 5개의 질문이 적혀 있었다. 그렇게 아침 열기가 끝나고 모두 분주히 여



행 준비를 하러 출발!

리아-북한-이집트’를 받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 볼까?!

2014. 09. 27 14:55:00

출국 5분 전, 2층 만남의 광장에 있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는 인포메이션 담당인 채현 언니와 양성민 오빠(5학년)가 여권도 정리하고 목에 두른 스튜어디스 스카프도 꼼꼼히 체크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깥 상황을 보기 위해 만남의 광장 문 바깥을 내다 보았는데, 학생들이 저 멀리까지 줄을 서 있었다!! 다들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시계 바늘아, 달려라♪

2014. 09. 27 15:00:00

드디어 출국할 시간!! 만남의 광장 문이 열리자마자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 줄로 나란히 선 학생들의 손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 여권과 여행 중 먹을 것을 담을 때 필요한 컵이 쥐어지고, 다들 자신의 코스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나와 회원이(사진기자, 3학년)는 ‘코스 1: 중국-영국-이탈

중국: 사회과 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건 온통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이라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왼쪽에서 친절한 안내 멘트가 들렸다.

“저희 카지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쩐지 분위기가 어두컴컴하더라니, 중국의 컨셉트는 마카오의 카지노였다! 고개를 돌려 보니 머리를 높이 올려 묶은 도운 언니(5학년)와 그 옆에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카지노의 주인, ‘마카오 준쟁’ 준상 오빠(5학년)가 보였다. 벽에는 중국풍 장식품들과 게임 방법을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고, 배경 음악으로는 중국 노래가 흘러나왔다.

카지노에서 노는 방법은 간단했다. 아무나 함께 와서 화투와 트럼프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게임 칩으로 사용되는 사탕을 받아서 게임을 즐기면 끝! 칩



은 한 사람당 12개씩 주고 나갈 때는 반드시 1개를 반납해야 한다. 상대에게 칩을 모두 뺏기게 되면 운동장 끝에 있는 ‘무인도’로 가서 벌칙을 수행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무인도에 가지 않기를 빌며, 나와 효원이는 트럼프 카드를 골라 인디언 포커를 시작했고, 20분 후,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 사람은…바로 나였다!!! 전 재산을 건 게임에서 내가 이겨서 효원이의 사탕을 모두 뺏어 왔기 때문이다. 무일푼 신세가 된 효원이는 무인도에 갈 뻔했지만, 나와 함께 여행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다반사의 특권을 사용해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다.

#### 영국: (구)음악실

다음 목적지는 영국! 이번에도 문을 열자 어두운 방이 나왔다. 이 방에 흐르던 음악은 영국 여가수 ‘Adele’의 노래들. 방 한 쪽에는 테이블 사커와 다트 판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체스 판이 놓여 있었다. 창문 쪽에는 나린 언니(5학년)가 서 있었고, 그 앞의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영국은 바(BAR)를 표현한 것이었다!

일단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해 나린 언니에게 메뉴를 물어 보자, 나린 언니가 영국 바텐더답게 영어로 대답해 주었다.

“There are 3 drinks. Blue lemon ade, grapefruit ade, and milk tea. You can refill once to milk tea. Which one do you want?”(3가지 음료가 있습니다. 블루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밀크티. 리필은 밀크 티로 한번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밀크 티로 리필이 가능하다는 말에 블루레몬에이드와 자몽에이드를 주문했다. 새콤달콤한 에이드를 마신 뒤에는 도장을 받기 위해 다른 커플과 게임을 해야 해서 옆에 함께 있던 수정 언니와 지은 언니(6학년)와 다트를 했다. 영국 국기 모양의 꼬리가 달린 다트를 가지고 열심히 던졌지만, 오 마이 갓! 지은 언니가 75점짜리 칸을 맞추는 바람에 도장은커녕 지고 말았고, 우리는 도장을 받기 위해 꼼짝없이 무인도에 가야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운동장



저 끝의 무인도로 출발….

#### 무인도: 운동장 그네 옆

무인도에 도착하자 눈을 가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 두 남학생이 보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밀가루가 잔뜩 뿌려진 접시와 그 속에 섞인 하얀 사탕들이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웬지 마음이 불안해졌다.

정자에 앉아 기다리라는 산 오빠(5학년)의 말에 한참을 기다린 뒤, 산 오빠가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산 오빠가 먹어야 하는 사탕의 맛을 알려 준 뒤 “출발!” 하고 외치면, 깨금발로 달려가 밀가루 속의 사탕을 오직 입으로만 집어서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출발!” 소리 때문에 허둥지둥 깨금발로 뛰어 접시를 온통 헤집고 간신히 사탕을 문 채 돌아왔다.

결승선에 다다르자 그제야 얼굴에 잔뜩 묻은 밀가루의 느낌이 났다. 사진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온통

밀가루 범벅이 된 채로 밀가루 맛이 나는 사탕을 먹으며 겨우 도장을 받았다. 다시는 무인도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 이탈리아: 카페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에 가기 위해서는 이성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나와 효원이는 운 좋게 지나가던 승택이(1학년), 동현이(3학년)와 만나서 가게 되었다.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카페 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고, 로맨틱한 이탈리아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주방에 있던 소아 언니(5학년)가 이탈리아어로 ‘좋은 오후’라는 뜻의 “부온 포메리조!”라는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인사를 자신의 파트너와 손잡은 채로 소아 언니에게 말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인사를 하고 소아 언니에게 컵을 주자 여자 컵에는 파스타를, 남자 컵에는 피자를 담아 줬고, 맛있게 나눠 먹은 뒤에는 도장을 받기 위해 ‘야매(?) 타로’를



보았다. 타로를 기다리던 중에는 학교에서 상큼함을 맡고 계신 아름 쌤께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으로 즉석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상큼한 목소리로 “너무 신나요!!!!”라고 소리치시고는 다음 질문을 채 하기도 전에 타로를 보러 떠나셨다.

**북한: 운동장 '반갑습니다' 앞**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던 나라, 북한! 북한에 도착하자 별 언니와 영서 오빠(5학년)가 보였다. 영서 오빠는 긴 총을 메고 군인 제복을 입고 서 있었고, 별 언니는 품이 넓은 하얀 한복을 입고 “날래날래 올라우!” “동무 자꾸 꾸물거리면 썩 버리잖어.” 같은 말과 함께 우리를 안내했다.

북한에서 한 게임은 ‘건빵 빨리 먹기’. 한 사람당 7개의 건빵을 1분 안에 먹어야 하는데, 성공하면 식혜를 많이 주고 실패하면 식혜를 조금 주는 게임이었다. 나와 효원이는 필사적으로 건빵을 썬서 넣었고, 결국 효원이는 40초대에 가장 먼저, 나는 끝나기 직전에

간신히 성공해서 둘 다 식혜를 많이 받았다. 게임이 끝나고 별 언니는 우리를 천막 뒤편으로 안내해서 걸려 있는 태극기를 가리켰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태극기는 온통 손도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별 언니 말로는 ‘간첩 활동을 위해’ 원하는 색의 손도장을 골라 찍어야 했는데, 나는 파란색을 꼭 찍고 왔다. 도장을 찍고 난 후 별 언니를 잠시 인터뷰해 보았다. 부스를 진행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 보자 별 언니의 대답은?

“김정일 수령님 사랑합니다!”

그렇다. 여긴 북한이었다.

**이집트: 과학실**

부스가 끝날 시간인 5시가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이집트에 간신히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역시 온통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문에 떠돌던 스텝크스는 없었지만 책상 위에 작은 피라미드가 놓여 있었고, 이집트 음악이 무한반복되고 있었다. 이집트는



간산 오빠와 현선 언니(5학년)가 담당이었는데, 먼저 간산 오빠는 말도 안 되는 년센스 퀴즈를 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별은?”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린 걸 5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차는?”

따위의 질문들.

학교에 놀러온 졸업생 장훈 오빠(08학번)는 이집트를 다녀온 소감으로, “어이없어요.”라는 한 마디만 남겼다.

현선 언니는 옆에 빵을 잔뜩 쌓아두고 퀴즈를 맞힌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거의 끝날 무렵인데도 빵이 많이 남았다며 그냥 주고 도장도 찍어 주었다. 빵에 바를 건 크림치즈와 칠리소스가 있었는데, 효원이가 크림치즈와 칠리소스를 같이 바르는 용감한 도전을 했다! 즐거운 표정으로 “맛이 어때?”라고 묻는 현선 언니에게 표정으로 모든 것을 말한 효원이다. 효원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인도: 식당**

5시까지 부스 여행을 모두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밥을 먹기 위해 인도로 향했다. 컨셉트가 인도라서 메뉴도 카레이고 수저 없이 손으로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 식당 입구에는 도운 언니와 별 언니(5학년)가 서 있었다. 언니들은 친절한 미소를 띠며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떼~” 하며 인사하며 빨간 도장으로 빈디(인도 여자들의 이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점)를 찍어 주고 있었다. 그렇게 ‘빈디’까지 찍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식당에서는 매콤한 카레 냄새가 물씬 났고, 사람들을 보니 정말 손으로 밥을 집어먹고 있었다. 가장 앞에서 인도 바지까지 차려입고 밥을 먹고 있는 삼인방, 상윤이, 한비, 가람이(3학년)에게 잠시 인터뷰를 시도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기분은 어떠냐고 묻자, 그들은 입을 모아 “더럽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배식

대에는 평소와 다르게 숟가락과 젓가락이 아예 한 자루도 놓여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한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인도식으로 밥을 먹으려면 밥과 카레를 띄어서 따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밥을 집어서 숟가락 끝으로 민 후에 카레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 참고로, 인도에서는 불일을 본 후 왼손으로 닦기 때문에 밥은 오른손으로만 먹는다고 한다.' 설명을 숙지하고 밥과 카레를 따로 받아서 손으로 카레를 먹었다. 정말...힘든 식사였다.

인도에서 맛있는 저녁까지 먹고 아쉽지만 세계 여행을 마치며 간디인들은 모두 공연을 보러 한국으로 돌아왔다. 북한에서 완성된 태극기와 관객들을 위한 의자까지 모두 설치된 멋진 무대, 현장에 있는 이한결 기자가 공연을 취재한다!



2014. 09. 27 19:00:00

한국: 공연 무대, 축구 골대 앞

하늘이 온통 어두컴컴한 7시가 되자,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슬피바람의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1, 2학년으로만 구성된 슬피바람 공연 팀이 신명나게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풍물 공연이 끝나자 사회자 지훈이 형(5학년)이 나왔다. 첫 번째 코너는 이번 가을 축제의 패셔니스타를 가리는 코너였다. 지훈이 형이 코너의 시작을 알리자 진행요원들이 관객석에 들어가 패션 종결자 후보들을 무대 위로 올려 보냈고, 후보들은 각자 몸에 잔뜩 힘을 주며 모델 워킹과 포즈를 선보였다. 순위는 관객들의 환호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로 해서 1등은 민지 누나(6학년), 2등은 지민이 형(2학년), 3등은 연이 형(2학년)으로 결정되었고, 세 패셔니스타는 수제 립밤 선물을 받고 무대를 내려갔다.

다음 공연은 인기 TV 프로그램 '히든 싱어'를 패러디한 4학년의 공연이었다. 진행자 전현무(양지훈, 5학년) 씨는 큰 천으로 모창 능력자들을 가리고, 관객 중 몇 명을 게스트로 모셔와 모창 능력자 5명 중 4학년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을 가려 내리는 미션을 주었다. 노래가 흐르자 5명의 모창 능력자들은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열창했고,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환호성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누가 4학년이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다. 많은 사람들이 2번 참가자를 지목했지만, 반전으로 5번 참가자였던 3학년 한비 형이 모습을 드러내며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은 5학년들의 춤 공연! 누나 다섯 명이 먼저 크레용팝의 <빙빙>과 <빠빠빠>로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고, 형 네 명이 무대에 올라와 걸스데이의 <darling>을 보여 줘 매우 상큼(?)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렇게

무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다.

다음 공연은 무엇일까? 하며 지훈이 형을 보고 있었는데, 진행요원이 올라와 지훈이 형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며 무언가를 말해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지훈이 형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큰소리로 비상사태를 알렸다. 바로 세계 여행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해 버린 것이었다!! 지훈이 형은 에볼라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양 박사님(양성민, 5학년)을 불렀고, 다행히 박사님이 감염자들에게 국가 모양 배지를 붙여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해서 배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감염자들은 박사님이 준비한 백신을 하나씩 골라 맛보게 되었는데, 백신은 두 개의 크래커 사이에 고추장, 겨자단무지, 전, 식용유 등을 넣은 요상한 음식이었다. 감염자들은 백신을 한 개씩 먹고 엄청난 표정을 지었다. 가장 정상적인 '초콜릿' 백신은 민석이 형(3학년)이 가져갔는





데, 민석이 형은 소감을 물어 보자 “맛있어요!!” 한 마디만 외치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이한결 기자는 여기까지 보고 나서 1학년의 공연을 준비하러 가고, 남은 이예슬 기자의 취재가 이어졌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바탕 휩쓸고 간 뒤, 분위기가 전환되어 상큼이 1학년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1학년들은 <콩쥐팥쥐> 연극을 공연했는데, 승택이와 승훈이의 콩쥐팥쥐 연기가 명품이었다. 한울이의 느끼한 목소리도 한 몫 거들었다.

다음으로는 빠질 수 없는 우리 학교의 명물 미지정! 미지정의 이번 무대에는 가요가 아닌, 색다른 분위기의 춤들이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효원이와 현영 언니(6학년)의 단독 공연이 정말 인상 깊었



는데, 돌이 리듬을 타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몸이 쉴룩  
거렸다!

다음은 5학년이 준비한 또 다른 코너, 랜덤 추첨! 아  
침 열기 때 작성한 입국 심사서가 드디어 빛을 발하  
는 순간이었다. 5명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엄청난  
상품을 가져갔고, 가장 좋은 상품! 햇반여행사 우주  
여행권은 지민이(3학년)가 가져갔다.

추첨이 끝나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밴드 공연이 이  
어졌다. 엄청난 실력을 선보인 밴드는 6학년과 정상  
샘으로 이루어진 '밴드 of 영아들'. 정상 샘이 보컬이  
었는데, 정상 샘의 엄청난 샤우팅을 들을 수 있는 신  
나는 공연이었다. 거기다 교내 최고 실력의 기타리스  
트 진규 오빠와 한솔 오빠, 베이시스트 현준 오빠, 드  
러머 현정 언니까지 나와 더욱 프로 같은 무대를 선  
보였다.

다음으로, 아쉬운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마지막 공

연은 2학년들의 순서로, 뒤에 걸린 태극기에 딱 맞는  
애국가 공연이었다. 2학년들은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등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총동원해 더욱 색다르고  
멋있는 애국가를 연주해 주었다.

애국가가 끝난 뒤, 다들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즐거웠던 어느 가을날의 여행을 마쳤다. 어느 축제보  
다 더욱 스펙터클하고 즐거웠던 이번 가을 축제, 아  
니 햇반여행사의 세계 여행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모두 일상의 피로와 지루함에서 벗어나 신나는  
여행을 했길 바란다! :) 🍷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멋진 오라버니들이 계신 곳, 형제수산

한별 기자(5학년)

‘형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꼭 닮은 얼굴, 티격태격하는, 푸근한, 비슷한 듯 다른, 서로를 꿰뚫고 있는, 호탕한... 필자가 만나고 온 ‘형제수산’의 이진영, 이진태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365일 문을 여는 가게 때문에 동생 이진태 님은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쉬는 날 시간 내주시는 형 이진영 님과 부인 손영희 님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즈음엔 호칭이 삼촌, 언니로 바뀌었다는 후문이...^^ 바닷가에서도 여기까지 사러 온다는 ‘형제수산’의 베스트셀러도 살짝쿵 소개해 주셨으니, 충주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지금 만나러 가시죠!

‘형제수산’이란 이름이 정감 가네요. 가게 이름처럼 형제가 수산업으로 뭉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진영 님-저는 원래 충주의 횡집에서 14년간 일을 했고, 동생은 안양에서 에어컨 설비 일을 했어요. 저희가 위로 형이 한 분 더 계신 3형제인데, 저와 형은 충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도 충주에 내려와 가족이 함께 살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횡집에, 동생은 제가 소개해 준 생선가게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횡집을 그만두었는데, 우연찮게 생선가게에 빈자리가 난 거예요. 웬지 생선가게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웃음) 처음에는 동생과 제가 가게를 각각 따로 운영하다가 합쳤어요. 이제 5년쯤 돼가요.  
손영희 님-형제가 각각 서로의 맞은편에 가게를 냈는데,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난감했죠. 동생이

손님을 잡으면 형 손님이 없고, 형이 손님을 잡으면 동생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가게를 합치게 된 거죠.  
횡집에서 하는 일과 생선가게의 일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진영 님-횡집에서 다루는 살아 있는 물고기는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선가게는 죽어 있는 물고기나 냉동 식품을 다루니까 처음에는 그날 받은 물건도 상한 줄 알고 일일이 냄새를 맡아 보곤 했어요. 횡집에서 하던 일과는 정말 달라서 애먹었죠. 가게도 거의 하루 만에 결정해서 하게 된 거였고요. 저희 남들처럼 계획을 짜서 하진 않아요.  
큰 계획 없이 시작하셨어도 승승장구하고 계시네요.



이진영 님-(웃음)저희는 책임감이 강해요. 동생은 앞에 진열 같은 것을 하고, 저는 물건을 시키는 거나 돈 관리를 하고. 형제가 함께하면 사소한 것으로도 더 많이 싸울 수 있잖아요. 저희 평일에는 형제가 같이 나오고, 일요일만 번갈아 가며 쉬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덜 쉬고 동생한테 시간을 좀 주죠.  
우애 좋게 사업을 이어오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금목걸이도 나눠 하신다고 들었어요.(웃음)  
이진영 님-형제의 우애요! 우애는 좋은데 성격이 정반대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부딪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좀 참는 성격이고, 저는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동생이 많이 참았죠. 그리고 동생은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를 싹 다 해 놓고, 저는 저녁

늦게까지 하다 가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서로 좀 양보하고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금목걸이는 저희 식구들이 해 줬어요.  
우애의 비결과는 모순되는 질문이지만, 두 분이서 싸우시면 누가 이기세요?  
이진영 님-이기고 지는 건 없지만, 화해는 제가 먼저 해요.(웃음) 일단 성질은 제가 내는 편이니까 싸워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죠.  
형제 두 분 다 자녀가 있으세요?  
이진영 님-저희는 없고, 동생은 애가 셋이에요. 9살, 7살, 4살.



곁에 계신 사모님도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판에 있는 그림도 직접 그리셨다고 들었어요!

이진태 님-형수가 예전에 티셔츠에 그림 그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손영희 님-저는 바쁜 겨울에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여름에는 가게가 별로 바쁘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생선류가 많이 나가죠. 찬바람 불면 동태찌개 끓여 먹는 다잖아요. 또 겨울엔 김장철이라 굴, 석굴, 생새우 등 때문에 바쁘죠.

가족이 함께 일하시네요! 형제수산의 대표 상품은 뭔가요?

이진영 님-저희 가게의 주력 상품은 조개예요. 저희가 10,000원에서 13,000원의 가격에 물건을 가져오면 소비자한테는 8,000원에 팔아요. (필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기자님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조개 때문에 단골 손님이 많아요. 다른 가게들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타지방에서도 택배로 부쳐 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바닷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사 가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다른 가게들 사이에 뒤늦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게를 어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개만큼은 다른 도시와 매장에서 따라오질 못해요. 아, 그리고 조개나 활어는 대전에서, 고등어 생물은 서울에서, 냉동은 부산에서 들여와요.

저희 소식을 보신 분들이 조개 사러 오시는 거 아닐까요? 조개구이 정말 맛있는데...♡ 요즘은 어떤 생선이 가장 맛있나요?

이진영 님-나중에 한 번 오세요. 여기서 구워 드시진 못하지만(웃음), 요즘은 생선 종류가 많지 않아요. 횡집은 전어나 대하가 잘 나가고, 생선가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손영희 님-충주가 내륙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멀잖아요. 생선을 많이 접해 보시지 않아서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드시기보다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동태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것들을 사 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갖다 놓는 게 한정적이긴 하죠.

바닷가 근처에 여행 가시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낚시 같은 것도 하시나요?

이진영 님-바닷가 근처에 가면 활어시장은 꼭 가요. 그곳에서 뭘 팔고, 뭐가 잘 나가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낚시는 못해요.

손영희 님-잡아 놓은 물고기가 들어 있는 수조 낚시만 해요.(웃음)

이진영 님-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취미가 없어요. 오로지 집 가고 쉬고.

생선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선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어떤 생선을 좋아하세요?

이진태 님-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가끔 먹긴 하죠.

이진영 님-동생보다는 제가 더 안 먹을 거예요. 원래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도 회를 14년이나 떠



오신 거예요?! 회도 안 좋아해요.(웃음) 저는 여기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생선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안 먹어 버릇했더니 안 먹게 되더라구요.

그럼, 생선도 회도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횡집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이진영 님-충주에 내려오기 전엔 서울에서 인쇄 일을 10년 넘게 했었어요. 막상 충주에 내려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횡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횡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손영희 님-자기가 해 왔던 것만 고집하지 않고 안 해 본 것도 도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 반하셨군요.(웃음) 일하시면서 힘들 때는 없으신가요?

이진영 님-힘들 때 없었는데...(웃음)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어서 가게에 있으면 재밌고, 원래 가게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있다 가곤해요. 우리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살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가지곤 해요. 아등바등 살지 않고 즐기며 살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힘들진 않았어요.

제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형제수산도 영향을 받으셨나요?

이진영 님-처음에는 타격을 좀 받았는데 어차피 저희는 큰돈을 벌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피해가 크진 않았어요.

손영희 님-일본에서 오는 생선이 생애 하나였거든요. 사고 이후부터는 일절 받지 않았죠. 수산업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진영 님-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끝나요. 그래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계에

있어야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횃집에서 근무했을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밤 11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못 쉬었죠. 한 달 중에 이틀 쉬었어요. 그게 조금 힘든가? 그래도 횃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재미나게 일했어요. 힘들게 일한 건 아니었죠. 다만 수산업계는 비수기 성수기가 나뉘어 있어요. 1년에 4~5개월은 비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진영 님-간디학교는 동생이 더 많이 알아요.

이진태 님-거기는 학교가 자유롭죠. 대안학교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체험을 많이 하죠. 일반 학교는 얽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애를 간디학교에 보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디학교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뽑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진영 님-별다른 목표는 없고요. 부모님 건강하시고, 형제끼리 잘 지내고, 직계가족과 싸우지 않고, 나이 먹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이진영 님-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데... (웃음) 소식을 보면 학생들이 원체 자유로워서 그런지 항상 즐겁고 재밌어 보여요. 나는 학교를

여러분처럼 다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간디학교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금쪽같은 주말에 시간 내어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려요! 인터뷰 중간에 기자가 역으로 인터뷰당(?)하기도 할 만큼 편하게 대해 주셔서 '언니'와 '삼촌'을 만나 수다 떨듯 놀다왔습니다. 맛난 밥도 사 주시고 학교까지 태워 주셔서 민폐 기자로 낙인찍히는 건 아닐지 걱정도 조금 됩니다^^ 앞으로 학교 밥에 나오는 해산물을 볼 때마다 종종 생각날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뵈요! 🍷



# 타로를 믿으세요?

최유경 신입기자(1학년)

집중식 수업 이후로 간디학교에 핫한 인기를 몰고 온 타로! 그 인기에 힘입어 이와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오정택 군을 필두로 타로 소모임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슈임을 증명하듯 생활관에서나 학교에서 타로 카드를 펼쳐 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풀이를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인터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명실상부 타로의 신, 오정택 군(3학년)을 만나 보았습니다.

\* 여기서 잠깐!

타로란 유럽에서 기원한 트럼프의 일종으로서 메이저, 마이너 카드로 이루어진 78장의 카드를 이용한 점술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간디학교의 '타로 소모임'에서는 상담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3학년 오정택입니다.

Q. 타로가 흔하지는 않은 주제인데,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었나요?

A. 집중식 수업을 들으며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타로를 논문 주제로 잡게 된 건데, 타로를 배우면서 정말 타로에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타로 소모임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발전시켜 실천에 옮기게 되었어요.

Q. 요즘에 타로 소모임이 하고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데일리 리딩이라고 해서 아침에 카드 한 장을 뽑고 저녁에 카드 한 장을 뽑아서 두 카드의 연관성을 일기로 쓰는 활동도 있고, 남의 타로를 봐 주고 함께 공유를 하는 활동도 있어요. 한 명을 타로 소모임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타로를 봐 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 중인데 아직 초기라서 하는 건 많이 없어요.

Q. 가장 많이 요청받는 타로가 뭔가요?

A. 연애죠, 아무래도.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의 질문이지요. 아무래도 학교 사람들이 청소년기이다 보니까 확실히 연애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Q. 듣기로는 논문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데, 논문을 쓰면서 소모임 활동도 같이하기 힘들 것 같아요.

A. 그래도 논문에든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저를 위한 거라서 힘들진 않아요. 카드 리딩도 서로 도와주기도 해서 오히려 꼭 필요한 존재죠. 저에겐 활력소가 되기도 해서 매 정기회의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Q. 한창 학교 내에서 타로가 이슈인데, 동아리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나요?

A. 동아리로 발전시킬 생각은 있었는데, 동아리 지원금 받으면서 돈 이야기 하기 싫기도 하고, 타로가 그렇게까지 성행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작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소모임으로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Q. 타로 소모임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타로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예요. 명상을 도와주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도구죠. 앞으로 타로가 인기가 없어진다고 해도 꾸준히 타로 소모임을 이끌어 가서 수준도 많이 향상시키고 리딩도 서로 봐 주면서 마음도 잘 이해해 보고, 자신 안의 갈등도 치료해 보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세요.

A. 여러분, 타로는 점보다는 상담의 도구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쓰고 있는 논문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힘드실 때 여러분 주위엔 타로를 읽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 기대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준 정택 오빠 고맙고, 앞으로 타로 소모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번외 '일상다반사'의 관계는 어떨까?

타로 소모임의 대장을 만난 만큼 인터뷰만 하기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준비된 번외편!

일상다반사 멤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정택 군이 현란한 타로 솜씨를 뽐냈다.

※ 타로라는 점술 자체의 정확성은 없으므로 그저 재미로만 보시길!

과거-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일상다반사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관계잖아요. 사적인 영역으로 침투할 필요는 있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멤버 간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일상다반사는 관계에서의 왕이에요. 관계에 관해 능숙하게 대하고 서로가 원하는 말을 잘 하죠. 화합이 좋나 봐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어느 순간에서 어떤 감정을 써야 하는지 잘 알고요. 대신 서로서로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아요. 공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굉장히 여유로우요, 풍요롭고. 파트너십이나 화합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걱정을 하고 있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야 하는데 굉장히 밝죠. 그리고 이 카드 속 여성이 평화로워 보이고 귀족 여성이잖아요. 그만큼 멤버 간의 화합이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멤버들이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은 굉장히 독립적 여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펜타클(일종의 코인. 타로에선 소득, 결실 등을 의미) 9개를 일구고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서로서로가 독립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미래- 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사람이 견습공이에요. 풍요롭긴 하지만 아직도 더 풀어야 하고 친해져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펜타클 7개를 만들고 8개째를 만들고

있잖아요. 점점 화합이 좋아지고 있다,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들끼리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읽혀지네요.

결론- 몹시 분위기도 좋고, 소득도 있고, 감정을 나타내는 컵도 나오고, 일상다반사의 화합은 무척 좋으신 것 같아요. ♪



# 씩 바뀌었다

손채은 기자(4학년)

2014년, 이번 4학년들은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의 180도 바뀐 필리핀을 다녀왔다. 필자는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들려줘 왔던 눈부시게 찬란한 바다, 하루도 빠짐없이 즐기는 스노쿨링을 상상했지만 그 상상은 상상으로 남을 뿐, 싹 바뀌게 되었다. 그래도 필자를 포함한 4학년들은 6주간 참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여름 호의 필리핀 보고에 이은 본격 비교! '무엇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4학년이 되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교육과정인 필리핀. 4학년=필리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학교에서 필리핀은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4학년 평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필리핀을 다녀온다.) 기존에는 3개월간 필리핀을 다녀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2학기 학교 활동에서 비중이 없다는 이유로 6주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6주 과정을 샘들과 함께 기획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코디네이터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필리핀 현지 코디인 로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의 코디 두 분이 함께 해주셨다. 공감만세는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년 기업이다. 이미 짜여져 있는 공정여행의 프로그램 중 샘들과 조율하여 조금 다른 일정으로 필리핀을 다녀왔다. 그로 인해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정이라, 색다른 필리핀 내의 단체를 만날 수 있

게 되고 단체와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실제로 이번엔 마을 청년 단체인 'BSYF(Bagong Silangan Youth Federation)', 계단식 논을 복원하는 단체 '시트모(Save Ifugao rice Terrace MOverment)'를 만나게 되었다. 또한 작년과 재작년 일정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이번 해 봉사 횟수가 더 많았고, 뉴필(이제부터 편의상 2014 필리핀을 뉴필, 저번 필리핀을 구필이라 부르겠다.)에서 진행한 활동이 부여하는 분명한 의미로 필리핀을 다녀온 선배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준비 활동도 많이 달라졌다. 구필의 준비 활동은 문화 교류를 할 춤, 아이들의 수업 준비 정도였지만, 이번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모금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다녀올 필리핀이니 우리 손으로 돈을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금 활동은 300만 원

날짜	2013(10학년)	날짜	2014(11학년)
6.13~30	필리핀 간디학교 (깔리카산) 필리핀 적응기. 고아원 문화 수업 진행, 자연 온천 방문, 워크숍, 영어 수업 등.	5.20~22	아시안브리지필리핀 게스트 하우스 필리핀 적응기. 빈민촌으로 들어가기 전, 빈부격차를 느끼기 위해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다.
7.1~5	보홀섬 본격적 필리핀의 시작. 농아 학교와의 교류, 농업 마을에서의 농업 체험, 트레킹, 생태 여행 등. 필리핀 자연 환경 체험.	5.23~30	빈민촌 바공실랑안에서의 홈스테이 마닐라 인근 빈민촌 바공실랑안에서 BSYF 청년 연합 집에서 홈스테이. 빈민촌 어린이 집 급식 프로젝트, 책상 만들기, 나무 심기 등.
7.6~10	까미퀸 예술가와 워크숍, 아이들 문화 수업 진행, Islakwatsa 투어, Mantigue Island 스노쿨링	5.31~6.7	키양안 본격적 계단식 논 복원 시작, 필리핀 내의 지정 홈스테이에서 생활, 시트모와 나가카단 마을 방문 및 복원 활동.
7.11~12	까가얀 데 오로 Masspec coop 호텔, 래프팅과 박물관 관람	6.8~11	바타드 사이먼 산장. 관광화로 파괴되는 계단식 논 확인 및 복원 활동. 폭포, 뭉바키 축제(미래를 점치고 축복하는 의식).
7.13~17	부키드논 딸란딕 마을에서 생활, 워크숍, 부족들과의 춤, 문화교류 파티	6.12~14	바기오 제2의 수도라는 바기오 여행. 예술인 마을, 탐아완 숙소 예술인 인터뷰, 탐아완 마을 둘러보기, 워크숍, 바기오 자유 여행
7.18~25	다바오, 세부 호수 다양한 워크숍, 아이들과 문화 교류, 온천, 사회적 기업 AKKAP 방문. -마닐라 -인천으.	6.15~17	마닐라, 아시안 브리지 다시 만난 BSYF, 씬 공감만세와 이별 파티.
	(일정의 횟수 차로 이 칸은 빈다.)	6.18~7.2	필리핀 간디학교(깔리카산) 정리의 시간. 다양한 워크숍, 두마게띠 섬 관광, 모듈별 기획 공정여행. -인천으로



가량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으로 떠나  
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돈을 모은다는 활동은 필리핀  
으로 갈 우리에게 있어 의미를 주었다.

위의 일정표에서 볼 수 있듯이, 뉴필에는 4주간의 공  
정 여행과 2주간의 정리 시간을 가졌다. 정리 시간은  
필리핀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며 짝꿍했던 일정에 비  
해 비교적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정리하라는 의미  
가 담겨 있다. 여태까진 필리핀 적응기를 위해 처음  
들른 곳이 필리핀 간디학교였고, 그곳에서 영어 수  
업을 받았지만 반대로 우린 그곳에서 정리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또 의사소통을 위해 진행해 왔던 영어 수업이 빠진  
점을 볼 수 있다. 이번엔 이를 과감히 채하고 필리핀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언어 소통의 부족함을 예년에  
비해 더 느꼈다고 할 수 있지만 몸짓이나 버벅거리는

말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세계 공  
통어라는 영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  
지만 직접 부딪히며 소통하는 게 어찌면 가장 이상적  
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구필과 뉴필이 활동했던 것을 보면 구필의 활동엔 ‘  
관광’ 요소가 많다. 필리핀의 자연 체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뉴필의 공정여행에선 ‘관광’보  
다 ‘체험과 여행’이다. 4주간 공정여행을 하면서 혼  
자서 여행을 하면 들르기 힘들 곳을 돌아다니며 조금  
더 자연 체험다운 체험을 하고 온 것 같기도 하다. 여  
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바다를 많이 접하지 못한다  
는 아쉬움을 가진 채로 떠났지만 반대로 색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해외 이동학습의 의미를 더 분명하  
게 가져다 주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면 항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작성



했던 보고서 작성 역시 확연히 달라졌다. 필자는 필리핀에서 돌아온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영어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영어 보고서와 한국어 보고서를 둘 다 엮어서 자료집을 만들었지만 우린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일지를 작성했다. 일지를 작성하며 우리가 먹었던 과자 봉지, 티켓 등을 붙이며 그 현장에 대한 생생함을 주기도 했다. 그 일지는 돌아온 후 필리핀발표 때 전시되었다.

항상 선배들이 2개의 보고서를 쓰는 점에 대해서 불필요함을 느낀 필자로서 뉴필의 바뀐 방식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쓰는 일지가 자신의 느낀 점을 바로 바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 더 효율적인 것 같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구필의 일정을 가지고

진행했던 필리핀이었는데, 6년간의 틀을 깨고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뉴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선배들 또한 바뀐 게 더 낫다는 평가를 해주었으며, 우리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좋게 끝났다. 덕분에 내년에도 이 틀을 그대로 가지고 떠날 것 같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해외 이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 활동과 자연 체험이 적합한 나라인 것 같다. 이번 연도는 더 길어진 홈스테이로 인해 그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리 아래 학년도 잘 적응하며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해외 이동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간디인이 됐으면 좋겠다(히히). ♡





# 벌레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한솔 기자(2학년)

찌르르르~찌르르르 뾰뾰뾰뾰 에에에에에...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기숙사는 늘 시끄럽기만 합니다. 쿵가에 들리는 모기소리 때문에 잠도 깨고, 피도 빠르고, 기온도 빠르고, 덕분에 미리강 방에 있는 버물리는 늘 바닥만 보입니다. 매일매일 벌레와 전쟁을 벌이는 간디인들의 이야기, 만나 볼까요?

시골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기숙사 덕분에 간디학교에 오면 하루도 빠짐없이 벌레를 만나 볼 수 있는데, 천장부터 방 구석구석까지 쉴 새 없이 출현하는 벌레들 때문에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 요기! 방심한 그 순간, 벌레는 어디선가 튀어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벌레가 많이 나오는 방이 있다는데, 기숙사 내에서 벌레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방은 어디일까요?  
투표 결과, 여자 기숙사에서는 101호가 압도적인 표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벌레방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벌레가 하도 많아서 방 불을 끄고 불이 켜져 있는 복도로 유인한 적도 있죠. 그 뒤를 이어 201호, 204호가 공동 2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기숙사 2층에 날개미 알이 부화해서 2층 모든 방에 날개미 수십 마리가 지나다녔습니다. 일명 '날개미 사태'라고 하죠.

남자 기숙사에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4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로는 201호, 3위로는 한 표 차이로 106호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숙사 운동장에 있는 농구 라이트를 켜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벌레를 부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남자 기숙사는 농구 라이트를 켤 때 창문을 꼭! 닫아야 될 듯합니다. 이렇게 벌레와 함께 살아가는 간디인들에게는 자연스레 벌레를 잡는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나타나면 방 청소용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쓸어서 밖으로 버리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방 불을 꺼 놓고 방문을 열어 놓으면 벌레들이 알아서 불이 켜져 있는 복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냥 참고 견디거나 벌레가 와도 둔해서 모른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벌레의 출현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다는 사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간디인과 벌레

# 기숙사에 많이 나오는 벌레 BEST 10

그린이: 이가운\*

**10위!!! 거미 (19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천장 구석등이  
활동하는 시기: 여름 (4월~8월)  
거미만의 매력: 모험애가 강하다.  
주의할 점: 독거미 조심!!!

**9위!!! 벌 (20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처마 밑, 풀숲, 과학실  
활동하는 시기: 여름, 가을 (6월~10월)  
벌만의 매력: 꽃의 수물과 암술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 ☹️  
주의할 점: 덩비지 말고 도망쳐라!!

**8위!!! 곱등이 (22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화장실, 풀밭 (어둡고 습한곳)  
활동하는 시기: 여름, 초가을 (6월~9월)  
곱등이만의 매력: 발 같은 성격이며, 뛰어난 점프력을 가지고있다.

**7위!!! 모기 (34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모든곳 (특히 풀밭)  
활동하는 시기: 여름 (6월~9월)  
모기만의 매력: 임신부의 피를 좋아하고, 유일하게 나를 찾아다니는 스토커  
주의할 점: 물렸을때 침 바르면 안되오!

**6위!!! 파리 (35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생태화장실, 식당  
활동하는 시기: 여름 (6월~9월)  
파리만의 매력: 그렇게 인생 짧지만 은근 깨끗하고, 먹이를 먹기 전에 꼭 손을 비비는 귀여운 습관!  
주의할 점: 따.. 딱킹 없는데?? 여름에 식당에서 밥먹을 때 머리위에 파리가 앉아있을 지도 모르니까 한번씩 고개 돌려보기!!

# 5위 지네 (44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방 구석, 복도

활동하는 시기: 봄 ~ 가을 (4월 ~ 10월)

지네만의 매력: 닭고기를 좋아하고,  
다리가 최대 2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식성이 아주 훌륭!!

주의할 점: 물렸을 때는 빨간약을 바르고  
가만히 있다.



# 4위 돈벌레 (52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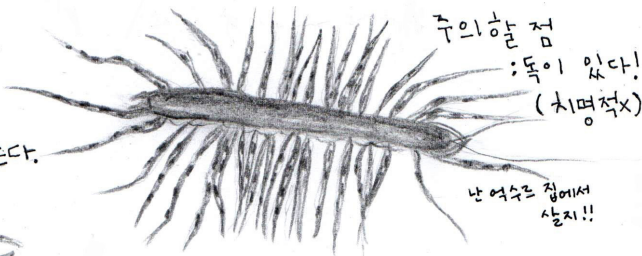
자주 출몰하는 지역: 비밀의 방, 벽에만 구멍

활동하는 시기: 여름 ~ 가을 (5월 ~ 11월)

돈벌레만의 매력: 귀엽고 복돋거리는 다리!  
또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주의할 점  
:독이 있다!  
(치명적x)

난 여수의 집에서  
살지!!



# 3위 개미 (복려 56표!)

자주 출몰하는 지역: 방 곳곳 구석구석

활동하는 시기: 봄 ~ 가을 (3월 ~ 11월)

개미만의 매력: 여왕개미는 특별식단을 먹는다.  
또 농성스럽고 성실하며, 힘이 세다.

주의할 점: 너무 작아서 실수로 밟을 수 있으니 조심!

메달 받아라 땀! 땀!



# 2위!!! 여치 (57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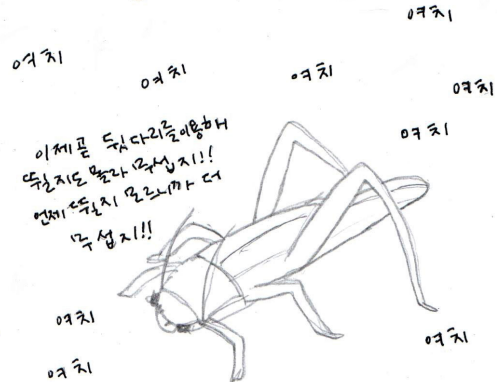
자주 출몰하는 지역: 복도, 화장실

활동하는 시기: 여름 (6월 ~ 9월)

여치만의 매력: 멋진 목소리로 여자를  
유혹하는 로맨티스트.

주의할 점: 실수로 밟을 때 아삭! 느낌이 든다.  
또 방심하면 손을 깨문다!

+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많이 나오서 인지도 급상승!!



이제 곧 뒷다리를 이용해  
뛰어도 된다 구경이지!!  
언제 어디서 모르니까 더  
걱정하지!!

여치  
여치

\*죄송합니다ㅠ 나는 여치를 도저히  
못그리워서 외주 맡겼어요  
그린이: 4학년 박상연  
나는 여치 사진을 3초 이상 못보겠어

의 기숙사 공존 이야기, 한 번 알아보까요?

\*닉네임 S양 님의 사연입니다.

벌레요? 벌레라... 아! 지네가 제 이불 위를 지나간 적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느 날 밤, 잠이 와서 이불에 딱 누웠는데 웬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 큰 지네가 이불 위를 가로질러 기어가더니 구석으로 사라졌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불 횡단!!!!!! 진짜 소름 돋았단니까요!!

\*익명으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벌레가 이어 준 인연이 있어요. 1학년때 진짜 진짜 큰 지네가 방에 나타나서 웬지 모르게 눈물샘이 자극을 받았어요.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울먹이면서 옆방에 갔어요. 그래서 방에 있던 6학년 언니한테 잡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땐 친하지도 않았고, 사실 조금 무서웠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6학년 언니와 나를 친해지게 되었죠. 벌레가 이어 준 인연이랄까... 그래서 벌레가 진짜 조금 고맙긴 해요.

\*닉네임 '벌레 싫어' 님의 사연입니다.

지네하면 딱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큰 지네를 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무빙 때 팔뚝 반만 한 지네가 정수기 앞에서 발견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애들이랑 막 소리 꺽꺽 지르면서 도망쳤는데, 어떤 애가 밀대를 가져와서 그걸로 지네를 막 꺽꺽 때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죽은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갑자기 지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차 충격을 먹었는데, 그 애가 지네를 계속 때렸어요. 그러다가 지네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네 몸에서 초록색의 똥가가 나왔어요. 그때 너무 징그러워서 보다 말았는데, 다음 날 보니 그 자리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도 똥가 찢겨서 그 뒤로 며칠 동안 그 자리를 계속 피해 다녔죠. 지네가 엄청 큰 것도 충격이었는데, 죽을 때 초록색의 무언가가 나온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땐 너무 놀라서 막 죽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네도 좀 불쌍해요...!!!!!!

\*익명으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가 농구 할 때 201호 옆에 라이트가 있어서 그걸 켜 놓고 합니다. 근데 그 빛 때문에 벌레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보같이 창문을 열어 놓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와 보니 천장이 검은색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원래 기숙사 천장은 밝은색인데... 기숙사에 있는 벌레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벌레와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 간디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던 간담회도 멈추고 벌레를 잡지 않나, 벌레를 없애고 없애다 결국 다른 방으로 피신을 하질 않나. 하지만!! 혜성같이 등장한 우리의 K양! 벌레 퇴치녀 K양 덕분에 간디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돈벌레부터 벌까지, 못 잡는 벌레가 없는 K양을 어렵게 취재해 보았습니다. 마침 인터뷰 전날에도 벌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던데, 한 번 만나 볼까요?

<간디 세스코! 벌레 퇴치녀 K양>

Q. 언제부터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

A.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일걸? 과리를 통에 가둬 놓고 흔들어서 죽이는 거 진짜 재미있었는데. 그리고 과리채 완전 좋아했어. 또 방아깨비 잡는 것도 진짜 좋아했어. 잔디에 앉아 있으면 완전 티 안 나거든. 그러다가 펄떡펄떡 뿔 때 탁 잡는 거 완전 재미있어. 진짜 귀엽지 않아? 그리고 잡자리 잡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 눈앞에 손가락 빙빙 돌리면서 최면 걸고 잡는 거 있잖아.

Q. 맨손으로 못 잡는 벌레는?

A. 벌이나 지네처럼 독이 있거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 근데 맨손으로 못 잡는 거지, 도구로는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어. 뱀 같은 거 말고 벌이랑 지네는 잡을 수 있지.

Q. 살면서 가장 잡기 어려웠던 벌레는?

A. 올해 들어서 돈벌레. 돈벌레가 갑자기 완전 빨라졌어. 딱 잡았는데 몸뚱이는 도망가고 털 많은 다리가 손에 남아서 꿈틀꿈틀 거렸어.

Q. 기숙사에서 벌레 잡아 달라고 호출 최대 몇 번?

A. 1학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 세어 보면 10번에서 25번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았던 거 같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Q.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잡아 본 벌레는?

A. 나 완전 많이 죽인 거 있다. 날개미한테 벌레 퇴치제 뿌려서 죽였어. 그리고 작년 2학기 때 개미가 장난 아니었잖아. 그때 우리 방에서 사과즙을 흘려서 개미

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밀대로 몽개거나 벌레 퇴치제로 다 죽였었어.

Q. 벌레 잡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A.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있어? 그냥 탁 잡는 거지. 그래도 재미있었던 걸 고르자면 어제 벌 잡았을 때? 씻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엄청 크게 우우우우웅 우우우우웅 이러는 거야. 보니까 벌이었는데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어. 근데 나한테 완전 가까이 우우우우웅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옷장 뒤로 들어가 버렸어. 쏘일까 봐 얼굴 들이밀기는 무서워서 계속 옷장을 툭툭 쳤는데, 그때 진짜 완전 진짜 완전 긴장됐어. 그래서 애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나오자마자 내 발에 닿고 그랬단 말 이야. 완전 무서웠어. 그러다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주워 와서 밖으로 내보내 줬지.

Q. 자신만의 특별한 벌레퇴치법은?

A. 그냥 손으로 잡아서 창문 밖으로 놔 줘. 난 벌레 안 죽인다니까! 벽에 붙어 있는 벌레한테 테이프 붙이는 건 죽이는 거잖아! 질식사! 그거 고문이야 고문. 나는 살려서 보내.

Q. 벌레가 어떻게 징그럽지 않을 수 있어?

A. 나도 징그러워! 소름 돋아! 무서워! 그거 얼마나 징그러운지 알아? 1학년 때는 복슬복슬 거리는 게 좋고 귀엽고 막 만지고 그랬었는데, 2학년 되니까 개네 너무 빨라졌어. 다리가 막 꿈틀거리고 징그러워. 그래도 귀엽긴 해. 토토로에 나오는 그 검은색 먼지들 같아.

Q. 나에게 벌레란?



자주 출몰하는 지역: 벌이 쪼여오는 모든 곳

활동하는 시기: 여름 (6월 ~ 8월)

나방만의 매력: 예쁜 나비에 비해 넘적해서 친근하다.

주의할 점: 나방 만지고 나서 눈 비비지 말 것!

<나방 인터뷰>  
Q. 영광스러운 1위의 자리를 차지하셨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A. 간디인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이런 상은 제가 받을게 아닌데. 들어보니 여치씨와 박방이없다면요? 뭐, 좋긴 하네요.  
Q. 간디인들에게 한마디!  
A. 저희 벌레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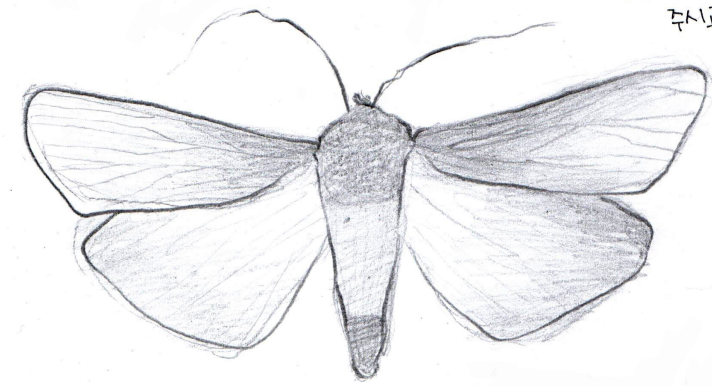


그림 • 유한울(1학년)

A. 무서운 존재야. 음... 불쌍하지만 귀여운 친구.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나는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야. 모기는 죽이지만 다른 벌레들은 다 살려서 내보낸다고. 그리고 나는 벌레를 튀겨 먹지 않아요! 누가 자꾸 튀겨 먹는다는 거야!

간디학교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모

습만 봐서는 징그럽고, 무섭기도 하지만 조금만 친해지면 귀엽기도 하고, 매력 있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벌레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도 많으니까요. 언젠가는 간디인들과 벌레들이 서로 친해질 날이 오겠죠? 이제는 밤마다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자장가삼아 깊은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

# 내비 뒤 줌

김한솔(6학년)

대안학교 학생이라면 외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 봤을 질문들이 있다. “대안학교는 어떤 곳이니?”, “거기 다니면 어떤 점이 좋니?”, “너는 거기 왜 갔니?” 등등.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도 한다. 대안학교는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다, 부적응아들이 가는 학교다, 이상한 곳이다,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도 오해를 많이 하더라. 하지만 나는 내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 오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시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해도 저는 무조건 이곳에 올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목표도 없이 하는 공부, 학생들의 인격과 특성 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교육 방식,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본인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기술. 자동차나 휴대전화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사람까지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런 대단한 부분이 싫어서 대안학교에 온 걸 것이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받고 싶은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권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본인들이 시키는 공교육을 거부하고 대안교육을 선택한 대안학교들과 학생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대안학교 범제화. 정부에서는 대안학교를 범제화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와 명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 영세한 규모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통제라는 목적을 뺀 내보이면서 ‘지원’이라고 말한다.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학교도 몇 군데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미인가’ 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학교이다. 정부가 대안교육 현장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아마도 진작부터 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 등록제 법안 내용만 봐도 수많은 대안학교가 각자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 또 교육의 자율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안학교의 가치관은 대안학교 존립의 근거로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려해 행복한 삶을 스스로 꾸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공



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등록제 법안이 실시된다면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대안교육의 목적을 상실할 위기가 올 것이다.

현 제도권 교육의 실태를 보면 학생들에게 절대 힘들지 않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흥미를 느끼거나 찾을 수 없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잔인한 경쟁 체제 속에서 ‘오로지 1등만이 좋은 대우를 받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 네가 힘들든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알아야.’라며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학생들의 미래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대안교육현장에서는 더더욱 교육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박혀서 교과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중요성과 어째서 모두 함께 행복해야 하는지,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지식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이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대안교육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 또한 인간이고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제도권 교육에 큰 변화를 주거나 대안학교들을 가만 두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나 또한 대안교육을 6년간 받아오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또 ‘다른 일반학교 아이들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는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든 적 없다고 한다면 거짓



말일 것이다. 나 또한 내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시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안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무얼 배우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해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적당할 것 같다. 배움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무얼 공부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는 교육이 바로 대안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교육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는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죽도록 수학공식만 외우게 해서 알려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내가 납득하기 전까진 우리를 통제하려는 당신들의 움직임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나는 애초에 국가가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눈에 훤히 보이는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손도 안 대고 국민들이 스스로 설립한 대안학교까지 지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얼마나 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기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인지 되려 의문을 제기하고 책임을 요구한다.

국가는 말한다.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야.”,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야.”, “돈이 없다면 불행한 삶이야.”

학생들은 말한다. “나는 왜 서울대를 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밤낮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지?”, “정말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나는 무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대체 뭐지?”



어째서 이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에 국가는 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또 왜 질문해 주지 않는 것인가? 이미 예전부터 공교육의 부작용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과 방책을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그랬다. 대구 교육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 자살 못하게 창문 폭을 좁혀? 그게 당신들의 대답이라면 그래 좋다. 당신넌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서 해 볼게. 대안학교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 모색하고 알아보면서 우리끼리 한 번 해 볼 테니까 제발 가만 내버려 두기라도 해라. 이 핵노답들아!! ☹





# 털니업~! 랩하는 친구들 투스

김민석 기자(3학년)

간디학교의 새로운 또라이로 떠오르는 전하성(2학년), 중국의 수도를 차이나라고 답한 백치미의 강자현(2학년), 물지 않고 쓰지 않으면 다 잡아 버리는 벌레퇴치녀 김태은(2학년)과 같은 독특하고 개성 강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당당히 가을 호 '화제의 인물'로 선정된 이는 바로 (두구 두구 두구 두구~) 3학년의 박지담과 김민석입니다!!!

이 두 친구는 학교에 하나뿐인 힙합 그룹 '투스톤'을 하고 있습니다. 투스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안학교 법제화를 반대하는 곡을 만들어 여러 무대에서 멋진 랩 공연으로 학교 안팎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공교롭게도 필자가 투스톤의 멤버여서 이번 화제의 인물 인터뷰는 투스톤의 1호 팬 4학년 안다연 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팬과 가수의 특별한 인터뷰를 만나러 가 보실까요~

##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투스톤은 3학년 김민석과 박지담이 2012년에 만든 힙합그룹이고 랩을 하고 있다. 투스톤의 뜻은 김민석의 석자를 돌 석자로 바꾸고 박지담의 담을 돌담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돌 두 개가 있다고 하여 투스톤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 둘의 랩네임은 민스톤, 지스톤이다. 이름의 별 의미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 두길...

Q. 투스톤의 색다른 자기소개를 부탁 드려요.

민석: 어... 우리를 소개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지담: 예, 저희는 제천간디학교에서 랩하는 친구들 투스톤입니다. 저는 지스톤.

민석: 저는 민스톤입니다.

Q. 굉장히 건전한(?) 자기소개네요.

민석: 예, 긴장했어요.

Q. 투스톤의 모든 것. 투스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민석: 2012년 겨울에 제가 부탁을 받아서 락페때 랩을 하게 됐는데, 혼자 하는 건 너무 무리여서 친구들에게 같이하자고 부탁을 했죠. 근데 개네가 다 싫대요. 근데 지담이가 주여 때 랩을 한 게 생각나서 같이 하자고 했죠. 저희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팀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저희도 재밌어서 이렇게 오래가게 됐습니다.

Q. 투스톤이 화제의 인물에 올라오게 된 매력은?

민석: 대안학교 법제화로 뜨거워졌을 때 저희가 공연하러 세종시 교육청사도 가고 아이택 기자회견장에도 가고 무대에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간디인들이 많이 알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시기가 잘 맞아서.



지담: 이번에 광화문에서 랩한 것도 큰 것 같아요.

Q. 투스톤에게 랩이란?

(오글거린 나머지 전원 웃음)

민석: 나부터 얘기할 게. 잘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듯이 재밌어서 랩 쓰고 랩하는 것 같아요.

지담: 저는 재밌는데, 더 연습하고 더 잘하게 되면 기분도 좋고.

Q.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시는데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은?

지담: 아, 일단은 작곡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곡의 MR을 인용해서 저희가 다시 가사를 써서 저희만의 색깔의 곡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우리 좀 뱃 뒤>와 <상소문>.

민석: 사회를 비판하는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저희도 좋아하죠.

지담: 우리 너무 잘 까는 것 같아.

민석: 잘 꼬집는다고.

지담: 경찰한테 잡혀 가는 것 아니야?

Q. 평소에 이미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담: 안 하는데, 있는 그대로.

민석: 안 해요. 무대 올라갈 때만 이미지 관리해요. 올라가서는 점잖은 척하고 내려가서는 욱하고 소리 지르고.

지담: 저희는 무대 위에서만 깔끔하게 보여 주고, 내려오면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대로를 보여 주죠.

Q. 지스톤에게 민스톤이란? 민스톤에게 지스톤이





란?

지담: 어우, 이거 따로 녹음하면 안 될까요?(웃음) 지스톤에게 민스톤이란 랩을 알려 준 장본인. 원래 초등학교 때는 노래도 잘 안 듣고 랩이란 걸 전혀 몰랐는데, 애가 알려 주니까 계속 듣게 됐죠.

민석: 민스톤에게 지스톤은 투스톤을 이끌어 가는 힘이죠. 제가 의지하는 부분이 많죠. 의지하는 친구.

Q.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싸울 거라는데, 투스톤의 리더는 누구죠?

지담: 리더는 없어요. 안 싸워요. 애가 이 파트 맡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 콜. 또 내가 이 파트 맡겠다고 그러면 애가 그래 해. 서로 쿨하게 하죠.

민석: 둘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지담: 공연을 할 때도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의논해서 정하죠.

Q. 팬들에게 한 마디.

민석: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2012년에 그때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공연에 불러 주는 쌤들도 감사하고, 감사하단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지담: 정말 어딜 가든 호응 잘해 주시고 매번 할 때 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계속 무대에 서는 것 같고.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과 목표는?

민석: 그러게요. 딱히 없네요. 그때그때 닥치면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건 많죠. 쇼미더머니도 나가 보고 싶고, 모두의 마이크라고 아마추어끼리 나와서 공연하는 무대가 있는데 거기도 가 보고 싶고, 홍대에서 공연도 하고 싶죠.

지담: 홍대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민석: 투스톤의 플레이리스트

\*투스톤이 좋아하는 앨범

지담: 소울컴퍼니의 'THE BEST', 다양한 노래가 있고 그 곡을 하나하나 들으면 정화가 된다.

민석: 저스트뮤직의 '파급효과(Ripple Effect)', 좋아하는 랩퍼들의 앨범이고 노래 하나하나가 창의적이다.

\*힙합을 처음 듣게 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노래

지담: 소울컴퍼니의 <아에이오우어?!> 처음 시작할 때 듣기 부담이 없고, 그 랩들을 부른 아티스트로부터 다른 랩퍼들로 뻗어나가 랩을 듣기 좋은 시작점이다.

민석: 다 필요 없다. 우리 노래나 들어라.

투스톤의 랩 한 마디

민스톤: 대안학교를 위한 법인데 그 안에 대안학교는 어딴지? -<우리 좀 뻐 뒤> 중에서-

지스톤: 집에서 돈을 씹어먹는 사람들에게겐 돈을 바치고 지갑이 찢어진다는 사람들은 다치고 -<상소문> 중에서-

앞으로도 투스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고, 인터뷰해 준 안다연 누나와 사진 찍어 준 안효원 사진 기자 고마워요~포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간디의 소식 (1학년이)

1 간디 음악회  
2 간디 노래  
3 간디 노래  
4 간디 노래  
5 간디 노래  
6 간디 노래  
7 간디 노래  
8 간디 노래  
9 간디 노래  
10 간디 노래  
11 간디 노래  
12 간디 노래  
13 간디 노래  
14 간디 노래  
15 간디 노래  
16 간디 노래  
17 간디 노래  
18 간디 노래  
19 간디 노래  
20 간디 노래  
21 간디 노래  
22 간디 노래  
23 간디 노래  
24 간디 노래  
25 간디 노래  
26 간디 노래  
27 간디 노래  
28 간디 노래  
29 간디 노래  
30 간디 노래  
31 간디 노래

#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3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4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5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6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7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8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9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0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1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2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3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4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5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6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7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8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19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0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1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2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3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4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5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6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7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8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29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30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31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8/25 리아 T

개학식 날! 간디학교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술을 담당하시는 리아 쌤이신데요. 리아 쌤은 2학년 부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려요!!!



8/27 피구 대회&물놀이

한여름의 불타오르는 열정, 무더운 여름 날, 질긴 어둠을 날려 버린 그날이 왔습니다! 이름 하여 체육부가 개최한 피구 대회 & 물놀이! 1, 2학년들은 물놀이를 하였고, 그 위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피구 대회를 하였습니다. 무기력했던 생활 속에서 더위도 날려 버리고 시원하게 한바탕 놀고 나니 기분도 업되고 보람도 느껴졌는데요. 다음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8/29 법제화 반대 문화제

8월 29일, 간디인들은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법제화 반대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대안학교들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쇄를 전제로 한 대안교육 법제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안학교들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신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각 대안학교가 부스를 열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연도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9/2 문화의 밤 '나는 내 삶을 산다'

드디어 2학기 첫 문화의 밤이 열렸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다'라는 주제의 문화의 밤이었는데요. 최계바라 기획사의 최윤현 대표가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5학년 한별 학생의 초대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덕분에 간디인들의 진로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듯합니다.



9/3 논문 중간 발표

9월 3일 수요일은 3학년들이 그동안 써 온 논문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아직 논문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썼는지,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최종 논문 발표 때 멋있게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6 문화의 밤 '늙은 소년들의 왕국'

화요일 저녁, 간디학교 운동장에서 특별한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극단 걸판의 <늙은 소년들의 왕국>이라는 연극인데요. 리어 왕과 돈키호테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부랑자들과 왕국을 건설한다는 신선한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을 보는 90분 동안 간디인들은 울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걸판과 함께 즐거운 연극을 관람했으면 좋겠네요~



**9/27 가을 축제**

5학년이 준비한 가을 축제! 매년 돌아오는 가을 축제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항상 색다롭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의 컨셉트는 세계 여행! 하루 동안 한국을 떠나 인도, 무인도, 이집트, 이탈리아 등 수많은 문화를 보고 느낀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나라 문화를 느끼기 위해 저녁밥으로 나온 카레를 손으로 먹었을 정도니까요! 저녁 무대에는 공방 패션의 최고를 가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던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5학년 정말 수고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0/1 간디 음악제**

10월 1일 오후 6시 30분, 제천간디학교에서 간디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제천간디, 간디어린이, 산청간디, 금산간디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어쿠스틱밴드에서 록밴드, 뮤직컬까지!!! 정말 다양하고 멋진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는 랩퍼 투스톤과 애국가 신생 밴드인 럼버밀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음악제를 통해 오랜만에 3간디가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0/10 간탄일**

간탄일이 돌아왔습니다! 간디학교도 벌써 어언 22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년 돌아와도 그때마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간디학교가 이대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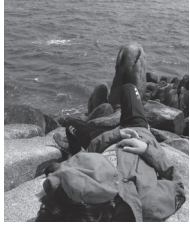
**10/14~10/15 논문 발표**

드디어 결전에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3학년들이 1년 동안 쓴 논문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이번 논문 발표는 정말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논문을 쓰면서 피곤하고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깨끗하게 논문을 쓴 3학년들이 멋있었습니다. 3학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19~10/25 인문학 캠프**

인문학 캠프는 6학년 2학기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본 캠프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예비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예비 캠프에서는 각자에게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 캠프에선 예비 캠프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더 자세히 깊게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엔 간디학교 6학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대안학교 사람들도 초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인문학 캠프가 6학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업데이트 필요한 사람은 사진 주세요.



이한결 기자(1학년)  
죄송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네요. 저의 게으름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기자의 공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기사 쓰신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고  
그중에도 같이 기사 쓴 예슬 누나 진짜 고맙고, 현장 취재 도와준 성현 누나 고맙습니다!  
(쿠벅)



최유경 기자(1학년)  
무빙 글 쓴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 호!  
그래도 다 쓰고 나니 후련하네요♡  
첫 기사이니만큼 부족함이 많아요.  
다음 호에선 좀 더 나은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령경 삽화기자(1학년)  
저번 호 기자 후기 때 앞으로는 더 부지런히 할게요~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완전 다음 날로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마지막 날에 파바박! 했어요. 다음 호는 진짜 더 잘하겠습니다아...



박성현 사진기자(2학년)  
ㅋㅋㅋㅋ 드디어 마음을 했어요  
사실 사진 기자여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왠지 엄청 바쁘고 정신없게 마음을 한 것 같아요.  
간쫘소 쓸 때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정말 멘붕 왔었는데, 도와준 민석 오빠 고마워.ㅋㅋㅋ  
마지막으로, 이번 가을 호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겨울 호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솔 기자(2학년)  
이번엔 좀 재미있는 기사를 말았나 싶었는데, 딱히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벌레  
기사를 쓰면서 적대감은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제 기사에 삽화 그려 준 가원 언니, 진짜진짜  
고맙고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이에슬 기자(2학년)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하는 기사를 말았는데, 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한결이한테  
미안하네요.미안하다!!!!!!  
다음 호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ㅎㅎ



안효원 사진기자(3학년)  
안효원 보스입니다!! 와우, 또 한 계절이 지나가네요! ㅎㅎ 이번에도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다음 호에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김민석 기자(3학년)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성실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보 찍어 준 효원이, 인터뷰해 준  
다연 누나, 지담이, 예림 누나 강 다 고마워! 일상다반사 파이팅~



손채은 기자(4학년)  
아, 이번엔 너무 나에게 끊임없는 짐을 안겨 준 기사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돌아와 복귀  
기사로 쓴 게 필리핀 기사라니! 우리 김예림 양으로 편집장이 바뀌었는데 할 일이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4학년이 돼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자니 이제 기사  
쓸 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한 번 잘~ 써 보겠습니다.



이기원 삽화기자(4학년)  
이번 호는 꽤 힘들었어요. 영경이가 삽화 기자로 와서 일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벌레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벌레 사진이 너무 입체적이어서  
3초간 아이컨택하고 있으면 토 나올 것 같았어요.ㅠㅠ 이번에 편집장 된 예림이 수고했고, 다음  
호에는 내가 스케줄러 할 거야!



한별 기자(5학년)  
편집장의 고충을 잘 아는데도 기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장 늦었네요ㅠㅠㅠㅠ 기자 후기 사진을 업사  
로 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리다 졸업할 때까지 마음을 한 번도 못 지키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다음 호 마음은 꼭꼭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인터뷰 해 주시고 진짜진짜 맛난 밥  
도 사 주시고 학교까지 태워도 주시고 과자도 사다 주신 형제수산 이진영 님, 손영희 님. 과분한 대  
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넙죽) 일상다반사 힘내요, 예림이 힘내!



김예림 편집장(4학년)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 영성하고 뒤송송하고 사고만 친 것 같아 죄  
송합니다.ㅠㅠ 이런 편집장임에도 기사를 써 준 일상다반사 여러분 감사해요. 아무튼 다 고맙고 그  
냥 그렇네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저희 기자 후기 사진을 보시  
면 모두 이렇게 생긴 건 아니랍니다.ㅋㅋㅋㅋ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폐허)☹

# 2014 상반기 공정여행

## 부탄 인류의 마지막 샹그릴라, 부탄

6월 1일 ~ 11일 (11일) / 금액 450만원~

인구 70만 명, 히말라야 자락 은둔의 왕국. 시속 20km 차가 달리는 나라.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나라. 왕이 스스로 전제군주에서 몰러나 입헌군주정을 선언한 나라. 해발 3천미터가 훌쩍 넘는 탁상사원에서 만나는 불가의 가르침. 왕도 정년이 있는 나라. 행복이란 무엇일까, 잠시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해보는 여행.



## 필리핀 천상의 녹색계단, 바타드 가는 길

5월 1일 ~ 5일 (5일) / 139만원~

세계 8대 불가사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을 거닐며, 바타드 마을 사람들과 뭉바키(제사장)가 함께하는 전통 축제를 즐기는,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삶이 힐링되는 공정여행 \*일반인도 가능한 간편한 트레킹 코스(해발 약 2,000M)입니다.



## 필리핀 바기오 이고룻족과 탐아완에서 예술을

6월 18일 ~ 22일 (5일) / 129만원~

필리핀의 여름수도 바기오, 대지와 하늘을 잇는 산에서 온 사람들 이고룻들과 함께 그들의 예술마를 탐아완에서 예술인이 되어봅니다. 표현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 저 멀리 안개 걷고 바기오를 내려다보는 카부야오 산 트레킹과 마닐라 필리핀 국립대학에서의 하룻밤, 당신의 예술의 혼을 이제 깨우세요.



## 일본 오구니 공정한 휴일, 온천 마을 오구니와 아소산

5월 10일 ~ 12일 (3일) / 95만원~

일본 3대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과 시모도오리에서의 아기자기한 쇼핑, 증기와 유황 자욱으로 그득한 오구니 마을에서 시원한 온천욕과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세계 최대의 활화산 아소산과 사쿠라지마의 하늘초원 산책까지, 공정한 숙소, 공정한 여행, 당신의 공정한 휴일을 책임집니다.



## 일본 간사이 간사이, 작은 실험들을 만나다

6월 5일 ~ 8일 (4일) / 109만원~

일본의 오욕을 돌아보고 지금을 성찰하는 오사카 아시아 도서관, 시니어 200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토 아트센터, 낮은 목소리로 전쟁의 책임을 고백하는 리쓰메이칸 국제평화박물관, 교토 장인 3대가 전해준 천연염색의 체험 마루마스 니시무라야 공방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간사이 사람들의 작은 실험들을 만나봅니다.



## 국내 북촌 디카에 담은 서울의 숨은 보석, 북촌탐닉 (2일)

4월 26일 ~ 27일 / 15만원

공정여행자가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숨은 보석 북촌 한옥마을. 과거부터 현대가 고즈넉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카메라로 북촌을 담으며 원주민을 배려하고, 여행자끼리 아기자기하게 이야기 나누는 여행을 합니다. 북촌탐닉, 이제 공정여행과 함께.

